

• 마태복음 5:1-2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삶의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과 태도를 요구하십니다. 다윗은 근본적인 죄성을 발견하고, 근원적인 변화를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시 51:10). 의식과 의지의 전환만으로는 우리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실 때, 우리 언어와 행동, 의식과 삶 전체가 변화됩니다.

팔복은 예수를 믿으려는 사람들을 무척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지금껏 살아온 삶이나 바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이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팔복에 관한 말씀은 다른 가치, 즉 ‘하나님 나라’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가 복이 있다’(Blessed are-)고 말씀하시지만, 세상 관점에서는 전혀 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에게는 진정한 복입니다.

당시 제국에서 통용되던 ‘관용’의 개념은 ‘주고받는 것’이었습니다. 관용의 라틴어 어원은 ‘리베랄리타스’(liberalitas)입니다. 당시 ‘나눔’은 언젠가 보답할 수 있는 사람에게 먼저 무언가를 주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후하게 베푸는 이유는 후하게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들은 나눔과 관용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국의 상식을 뒤엎고 다른 나라, 다른 가치를 선포합니다. 보답할 수 없는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뻗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명하십니다. 우리가 베풀 자비와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통념인 리베랄리타스 앞에 새로운 가치를 제시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 5:46-48).

나는 어느 나라에
더 가깝습니까?

- ① 세상의 통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 중 어디입니까?
- ② 내가 생각하는 복은 무엇입니까?